

총선 당원모집 광주시 공직자 대거 관여 확인

산하기관·국장급 등 간부 포함 정중제 부시장 위해 활동 정황 광주지검 20여명 소환 수사 속도

광주지검이 광주시와 산하기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등 일부 공직자의 내년 총선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 당원모집 개입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조사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 예상자였던 정중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돕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모집했다는 진술이 나왔기 때문이다.

일부 공무원은 자신도 모르게 가족이나 친구 등이 자발적으로(당원모집을) 도운 것이라며 발뺌을 하고 있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분위기다. 지역 법조계에선 이미 일부 혐의와 증거를 확보한 검찰이 조만간 기소 여부와 기소 범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8일 광주시와 광주지법검찰청,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 9월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이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출마 예상자였던 정중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위해 당원을 모집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당시 광주도시공사 간부의 사무실 등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원모집 자료가 발견됐는데, 1차 모집에만 100여명에 이르고 이들이 모집한 남구에 주소를 둔 민주당원 리스트만 8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확보한 당원명부를 토대로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관련자들의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에 따라 정 부시장은 지난 10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불출마 선언과는 별개로, 광주시 공무원과 시 산하 직원 등 20여명이 넘는 공직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중 국장급을 포함한 5급 이상 공직자 간부도

여러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평소 정 부시장과 가깝게 지내온 광주 출신 중앙부처 모 고위 공무원도 당원모집 명부 추천인 명단에 포함돼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조사를 받은 공직자 중 광주시청 모 간부를 비롯한 일부는 이미 당원모집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일부는 향후 재판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에 서두르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당원모집에 관련된 공무원 중 일부가 정 부시장의 고교동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동문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모집 정황과 전보·승진 인사 등 암묵적 대가 여부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청 내에선 그동안 인사철이면 일명 'IS라인'이란 별칭으로, 특정고교 출신의 승진과 주요 보직배치 등이 입삼에 오르내렸다.

이에 대해 광주시청 노조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정 부시장은 취임 후 총선출마를 염두에 둔 '특강행정'으로 내부 직원들

로부터 많은 우려와 비판을 받아왔다"며 "불법당원 모집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정 부시장을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중제 부시장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원모집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를 한 적도 없다"며 "사후에 이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역 법조계에선 공직자의 당원모집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이른바 '관권선거'에 해당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광주시 대변인 등 전·현직 공무원 12명은 당시 강운태 시장의 재선을 돕기 위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당원을 모집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가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윤대영 광주지검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등과 관련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 규정에 따라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겨울철새 도래지 영산강 둔치 시 방역
겨울철 철새의 본격적인 도래 시기를 맞아 지난 6일 광주시 북구 시장산업과 동물관리팀 직원들이 건국동 영산강 인근 둔치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 출신 민족·민주 운동 거목 오종렬 진보연대 총회회장 별세

광주출신으로 평생한국민족자주·민주운동에 헌신한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회장이 별세했다. 향년 81세.

1938년 11월 전남 광산군(현 광주시 광산구)에서 출생한 오 의장은 광주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교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교사 운동에 매진하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범에 적극 앞장섰다. 전교조 광주지부 초대 지부장 등을 지냈으며, 1989년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전교조 활동 관련자로 구속되기도 했다. 1991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엔 제1대 광주시의회의원에 당선돼 교육 개혁안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또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상임의장과 전국민중연대 상임공동대표, 우리살 지키기 운동본부 대표,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민족자주통일 운동을 위해 활동했다.

빈소는 서울대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오는 10일 오후부터 광주 조선대 장례식장에서도 조문할 수 있다.

영결식은 오는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족통일장으로 치러지며, 11일 오전 10시 금남로에서는 노제가 진행된다. 장지는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떡통' 스프링클러 막는다...완공 검사때 소방서 현장확인

소방시설 개정안 내년 3월 시행
스프링클러처럼 초기 화재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동화설비의 완공검사를 할 때 일선 소방관서에서 현장 확인을 하게 되는 등 소방시설 시공 관리가 강화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0일 공포해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자동화설비 완공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방서에서 완공검사를 위해 현장 확인을 나가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확대해 스프링클러나 물분무화설비 같은 자동화설비 완공검사 때에도 소방감리업체와 별도로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을 하도록 했다.

또 화재 초기 인명 대피에 도움을 주는 비상방송설비와 비상조명등에 대해서도 소방감리자를 지정해 적정 시공 여부를 감

독하도록 했다.

소방시설을 설치·교체하는 경우 착공신고 의무와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신축이나 증축, 개축, 구조·용도 변경 같은 '건축행위'가 있는 건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9 달뜨기 15:33
해질 17:20 달뜨기 04:10

감기 조심하세요
구름 많고 일교차 크겠다.

| | | | | | |
|----|------|-------|-----|------|-------|
| 광주 | 구름많음 | 0/12 | 보성 | 구름많음 | -5/10 |
| 목포 | 구름많음 | 1/11 | 순천 | 구름많음 | -1/12 |
| 여수 | 구름많음 | 2/11 | 영광 | 구름많음 | -1/12 |
| 나주 | 구름많음 | -4/12 | 진도 | 구름많음 | 0/13 |
| 완도 | 구름많음 | 2/13 | 전주 | 흐림 | -1/12 |
| 구례 | 구름많음 | -5/11 | 군산 | 흐림 | -2/11 |
| 강진 | 구름많음 | -3/13 | 남원 | 흐림 | -5/10 |
| 해남 | 구름많음 | -4/13 | 축산도 | 구름많음 | 8/13 |
| 장성 | 구름많음 | -4/11 | | | |

◇ 바다 날씨

| | | | | | |
|-------|--------|------|---------|------|---------|
| | | 오전 | | 오후 | |
| | | 풍향 | 파고 (m) | 풍향 | 파고 (m) |
| 서해 남부 | 안바다 | 남~남서 | 0.5 | 남~남서 | 0.5~1.0 |
| | 면바다(서) | 남~남서 | 0.5~1.5 | 남~남서 | 0.5~2.0 |
| | 면바다(동) | 남~남서 | 0.5~1.5 | 남~남서 | 0.5~1.5 |
| 남해 서부 | 안바다 | 서~북서 | 0.5 | 남~남서 | 0.5 |
| | 면바다(서) | 서~북서 | 0.5~1.0 | 남서~서 | 0.5~1.0 |
| | 면바다(동) | 서~북서 | 0.5~1.0 | 남~남서 | 0.5~1.0 |

◇ 생활지수

| | |
|------|----|
| 감기 | 높음 |
| 뇌졸중 | 높음 |
| 미세먼지 | 보통 |

◇ 물때

| | | |
|----|-------|-------|
| | 간조 | 만조 |
| 목포 | 05:17 | 12:20 |
| | 17:49 | --:-- |
| 여수 | 00:56 | 07:21 |
| | 13:20 | 19:25 |

◇ 주간 날씨

| | | | | | | |
|-------|-------|-------|-------|-------|-------|-------|
| 10(화) | 11(수) | 12(목) | 13(금) | 14(토) | 15(일) | 16(월) |
| ☁ | ☁ | ☀ | ☀ | ☀ | ☁ | ☁ |
| 3/15 | 5/14 | 2/8 | -1/10 | 4/12 | 3/13 | 6/13 |

홍콩 시민활동가 간담회 옛 전남도청 별관으로 변경

전남대 충돌 우려 대관 취소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홍콩 시민활동가 초청 간담회'의 행사장소가 전남대 인문대학의 급작스런 대관 취소로 옛 전남도청 별관으로 바뀌었다.

8일 광주인권회의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전남대는 '홍콩 시민활동가 초청 간담회'를 주최하는 시민단체 측에 대관 취소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오후 6시 30분 전남대 인문대학 1호관 이층호 강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간담회는 같은 시각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1층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된다.

전남대 관계자는 "중국인 유학생의 반발 등을 우려한 실무진이 대관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유학생과 간담회 참석자간 물리적 충돌도 우려한 듯하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 동구 어린이집 유아 대상 '꾸러기 금연새싹교실'

광주시 동구가 어린이집 유아들을 대상으로 '꾸러기 금연새싹교실'을 운영한다.

8일 동구에 따르면 꾸러기 금연새싹교실은 유아기 때부터 흡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금연전문상담사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3회에 걸쳐 유아들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진행한다.

12월 한달 간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아이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인형, 그림, 모형을 통해 ▲담배 속 나쁜 물질이

해 ▲담배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금연 장소 구분하기 등을 교육한다.

또 아빠·할아버지 등 가족들 중 흡연자에게 담배의 유해성을 전하는 가족건강 지킴이로서 역할극도 진행한다.

동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한편, 흡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길러 성장기 흡연진입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2019년 12월 9-20일
정읍시의회

시민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선진의의회

www.jcc.or.kr